

# 나의 길

어렸을적 친구들과 함께 땀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남의 선영을 모두 다 태워버린 적이 있다. 잔디로 잘 정돈된 선영 한쪽에 불을 붙여 놓았더니 추위를 잊게해줄 정도로 훈훈하게 잘도 탔다. 까짓거 불타는 면적이 조금 넓어져도 솔가지 등을 이용하면 금방 불길을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했으나 방심은 금물이라 했던가. 갑자기 불어닥친 세찬 바람에 어린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다. 다행히 마을에서 빨리 발견하여 어른들이 달려와 주었기에 백여평되는 남의 선영만 태우고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그때 순경아저씨며 선영주인, 또 부모님께 얼마나 많은 야단을 맞았는지.

이런 전과가 있었던 내가 지금은 소방인이 되어서 강산이 두번 반이나 바뀌어버린 23년 동안 일해오고 있다. 나이도 50에 접어들어 머리는 희끗거리고 외손주의 재롱에 즐거워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정년을 사고없이 무사히 끝마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주어진 생활이나 주섬주섬 챙기고 있는 내게 소방안전봉사상에 일계급 특진이라는 엄청난 영광이 있으리라고 감히 꿈에라도 그려볼 수 있던가? 갑자기 불꽃계급장을 달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영상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러니까 23년전 남다른 사명감



서 병 대  
<용산소방서 소방장>

을 가지고서 소방에 발을 들여놓고 첫월급봉투를 받아보니 소방사시보 서병대 1호봉 (4, 500원)이란다. 기가 막혔다. 당시 쌀 한가마가 삼천원씩 하던 시절이다. 그래도 어찌랴. 내가 좋아 내발로 찾아온 길인데.

첫근무지는 용산소방서 한강로 파출소였다. 배명을 받고 처녀출동했던곳이 관내 어느 조그마한 음식점이었다. 처음으로 소방차를 타고 앵앵거리면서 출동하는데 호기심과 두려움이 겹친다. 다행히도 주인의 빠른 신고와 즉각 출동한 우리 소방관에 의해 어렵지 않게 진화되었다. 별거 아니구나. 소방차만 출동하면 불은 기가 죽는 모양이다. 첫 출동이 그렇게 싱겁게 끝났으니 어찌면 당연한 생각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소방관의 경솔함이 자기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게도 엄청난 불행을 안겨준다는 것을 그후에서야 알게되었다.

우리 용산소방서는 남영동 삼각지 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출동할 때면 항상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 그날도 아마 새벽으로 기억되는데 술에 가득 취한 봉고차가 삼각지를 질주하고 있을때 우리소방차는 좌회전 신호를 깜박거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봉고차가 우리소방차를 박치기 하더니 저만치 나동그러진다. 차안에는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참으로 보기 딱할 정도의 참상이었다. 다행히도 목숨들은 건졌지만 우리에게 좀더 관찰하고 방심해서는 안된다는 방어운전의 좋은 교훈이 되었다.

소방인들의 이야기가 사람구해주는 일을 빼고나면 무어가 있겠는가마는 그래도 우리 기본업무 중에는 예방활동 차원의 소방순찰과 진화작업의 원활을 위한 소화전 관리상태 점검 등 다양하다. 한겨울 시장통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서 생선을 파는 아저씨들에게는 당장 모닥불을 끄라고 야단칠 수가 없다. 조심조심을 당부하고 장사가 끝나면 완전소화시킬 것을 부탁하고 다음 코스인 아파트로 이동한다. 정문에 들어서면 현관 옆에 조그마한 경비원실이 있고 거기에 경비원이 쪼그리고앉아 석유스토브를 켜놓고서 꼬박꼬박 졸고있다가 발자욱 소리에 놀라 일어나면서 우리를 알아보고 인사를 한다. 그러다 석유스토브를 바라



보고 있으면 겸연쩍은듯 하릴없이 뒷머리만 극적거린다. 벌써 몇번 째 사용않겠다는 각서를 받아왔는지 모른다. 그렇게 방화예방 순찰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다 되어간다. 그때까지도 아내는 이웃집에서 옷가지 등을 산더미처럼 가져다가 쌓아놓았다. 남편의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4남매를 키우려하니 도저히 생활이 어려웠던 모양이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남편의 짐을 덜겠노라고 시작했던 바느질이 딸 셋과 아들 하나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게 만들었으니 무능한 가장으로서 고마울 뿐이다.

이렇듯 근무조건이 어렵다보니 전체 공무원 중에서 가장 이직률이 높은 비인기직종이 되었지만 동료들이 어느날 갑자기 타 직장으로 빠져나갈 때에는 한편 잘되었다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가슴아플 뿐이다. 나 자신도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 이 직장을 떨쳐버리고 싶어질 때가 많다. 그때마다 옛날 어린시절 남의 선영 태워먹었던 일을 상기하며 누군가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면 이 한몸 기꺼이 그 한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소방관 업무는 불끄는데만 그치지 않는다. 90년 9월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와 수재민이 났던가. 곧바로 재해현장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출하고 침수 가옥들의 물을 퍼냈다. 사방이 물바다이건만 정작 식수가 없어 목말라하는 곳에 급수지원 등을 하느라 몸이 몇십개라도 부족하였다. 물이 빠져나간후 우리 소방차는 골목마다 찾아다니며 나머지 배수작업을 도와주고 주택을 청소하느라 눈코뜰 새가 없었다.

파출소앞 녹지대의 포플러 잎들이 바람에 마구 떨어지고, 11월 중순인데 엇그제는 기온이 갑자기 영하권 이하로 내려가서 겨우살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날씨가 추워지면 자연스럽게 따뜻한 난방시설을 가까이하게 되는데 우리모두가 내자신과 내가정을 위해 철저한 불조심 운동으로 옮겨올은 화재사고가 한건도 없었던 한해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 티끌만한 부주의가 태산같은 화재된다